

‘사업비 증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차질없이 추진

물가 상승 등 사업비 늘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면제 중액 규모 등은 KDI와 협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사일정 연기가 우려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검토했던 기획재정부가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 광주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재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

일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2010년 최초 사업비 확정 후 물가상승,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한 법 개정, 현장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만큼 타당성 재조사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2단계 사업 예산이 기존 2조2114억원 보다 9000여억원이 증가한 3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예산이 기존 추정액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애초 광주시의 막대한 추가 예산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특히 타 자치단체 관련 사업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 건설이 늦어지면서 원자재가 등 관련 물가 등이 치솟은 점을 집중 부각하며 기재부를 설득했다.

실제 광주도시철도2호선은 2002년 10월 기본계획이 최초 승인되고, 2010년 12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지만 1단계 건설공사는 2019년 9월에서야 시작했다.

이마저도 일부 시민단체 반대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민선 7기 들어 2018년 11월 시민 공론화를 통해 16년간의 논란을 매듭지었다. 당시 시민참여단(243명) 중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191명(78.6%)으로 압도적이었

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이 원자재부터 인건비, 땅값 등 모든 비용이 치솟았다. 자체비와 인건비 등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지가 상승까지 겹쳤다.

여기에 전체 구간 중 일부는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고, 터널 구간 추가도 예상돼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 공사 관련 법령이 강화된 것도 사업비 증액의 주 요인이 됐다.

광주시는 일단 최소 물가·임금 상승으로 2357억원, 법령 개정으로 1700여억원 등이 필수적으로 필

요하며, 도시철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지하화 등에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타당성 재조사 면제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예산증액 규모와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사업비와 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광주시는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6개월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2단계 사업에 착공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의 주된 목표는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과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늘려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테니 합의점을 잘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수색 및 구조 계획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지난해 수출액 427억 달러 ‘역대 최고’

전년도보다 58% 증가 농수산물 5억6000만달러

전남도가 2021년 한 해 도내 수출액이 4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419억 달러 달성 이후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271억 달러)보다 57.6%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2년 419억 달러, 2016년 278억 달러, 2018년 366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전남의 최대 수출품인 석유화학제품이 169억 달러로 전년보다 53.2% 증가한 것을 비롯해 석유제품이 113억 달러, 철강 제품이 79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59.5%, 124.9% 늘었다. 그 외 화물선, 비료 등 수출제품이 전체적으로 증가했

다.

특히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4억6000만 달러)보다 21.2% 증가한 5억6000만 달러로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2억 5000만 달러, 2016년 3억2000만 달러, 2017년 3억 5000만 달러, 2018년 3억9000만 달러, 2019년 4억5000만 달러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 2억3000만 달러, 전복 4300만 달러, 분유 3800만 달러, 유자차 2000만 달러 등으로 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1년은 전남 수출기업인의 저력을 확인하는 한 해였다”며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아마존 브랜드판 확대, 미국 내 자사물 운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AI 집적단지 개발 박차... 데이터센터·장비 지원

과기부, 올해 1천76억원 투입 전문기업 지원·핵심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광주 집적단지 사업)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비로 1076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인공지능 국가전략’ 핵심과제인 광주 집적단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76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히 올해 고성능 컴퓨팅 지원을 제공하는 AI 특화 데이터 센터와 테스트 장비 등 실증장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 규모는 88.5페타플

롭스(PF)로, PF는 1초에 1000조 번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 연산 속도 단위다.

정부는 또 올해 AI 전문기업 99곳을 지원하고, 1260명의 AI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이 중 760명은 광주 내 AI융합 학부에서 교육받는 대학생이고 나머지 500명은 재직자와 구직자, 취업 준비생 등이다.

지자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형 기술개발 14개 과제에 계속 지원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경호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AI-뉴딜 자치구 사업 공모

광주시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의 대전환을 견인할 광주형 3대 뉴딜의 지역 확산을 위해 자치구 우수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광주형 AI-뉴딜에 적합한 사업 중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자치구가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자체 사전심사를 통해 1건을 선정된 뒤 오는 2월23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된다.

5개 자치구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형 AI-뉴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지역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총 10억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광주시는 “설 명절과 본격적인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광주에선 지난 10년간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봄 시즌에 8건이 집중됐다.

광주시는 산불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확충, 산불무선통신지원 등 산불방지대책비 2억50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림재해일자리창출에 11억2000만원 등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산불전문진화대 75명을 선발하고 진화차,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조동진화 체계도 구축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한 국립공원측과 공동도 강화하고 있다.

무등산과 금당산 등 도심 주요산 8곳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로 상시모니터링하고 산불취약지 72곳과 주요 등산로, 눈·발두렁 소각 행위에 대해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없앴다.

특히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시 소방헬기(1대)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으로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과 관할 경찰 등과 협력해 산불을 조사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올해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등산객이나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눈·발두렁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된다”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 시 산불종합상황실, 산림청 산불상황실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